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범죄 누아르의 계보 조망 '멜빌 x 만 x 레폰' 기획전 개최

: 한국영상자료원, 3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 시네마테크KOFA서 개최
 : <사무라이>, <푸셔> 3부작 4K 복원판 및 마이클 만 <블랙코드> 감독판
 국내 최초 상영



▲ '멜빌 x 만 x 레폰' 기획전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3월 12일(목)부터 4월 7일(화)까지 시네마테크 KOFA(상암동 소재)에서 '멜빌 x 만 x 레폰'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세대와 국적은 다르지만 '직업적 범죄자'와 그들이 따르는 고독한 규율에 주목해온 세 감독, 장 피에르 멜빌, 마이클 만, 니콜라스 윈딩 레폰의 범죄 누아르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 누아르의 계보를 잇는 세 가지 시선

프랑스 전후 영화를 대표하는 장 피에르 멜빌(1917~1973)은 1930년대 할리우드 필름 누아르의 영향을 받아 실존적 범죄 서사를 구축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 시기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이름을 차용한 일화에서도 드러나듯, 그의 영화에는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영향이 반영돼 있다. 대표작인 <두 번째 숨결>, <그림자 군단>, <사무라이>, <암흑가의 세 사람>은 신화적 분위기 속에서 법과 제도의 경계에 선 인물들을 운명적으로 교차시킨다. 그의 영화 속 인물들은 침묵과 규율, 의리와 배신이라는 누아르의 요소 속에서 고독하게 존재하며, 누아르를 철학적 우화의 성격으로 확장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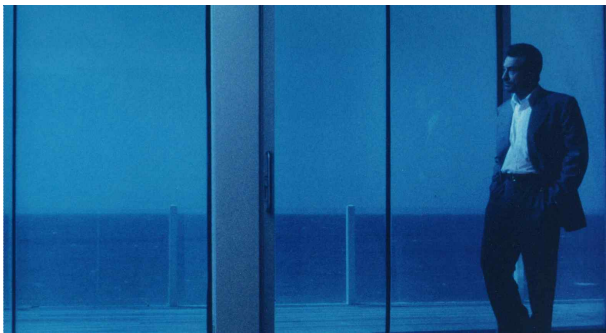


▲ <두 번째 숨결> 스틸



▲ <사무라이> 스틸

마이클 만(1943~)은 TV 경찰 드라마 작가로 경력을 시작해 1980년대 초반 극장 장편 데뷔작 <도둑>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이후 <히트>, <콜래트럴>, <마이애미 바이스> 등을 통해 범죄자와 법 집행자 양측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장르영화를 강박전 프로페셔널리즘과 고독한 남성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시켰다. 도시의 야경과 총성이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직업적 완벽함을 추구하며 긴장감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연출은 상업성과 작가주의의 경계에서 미국 범죄영화의 한 흐름을 형성해온 사례로 평가된다.



▲ <히트> 스틸



▲ <콜래트럴> 스틸

덴마크 출신의 니콜라스 윈딩 레픈(1970~)은 장편 데뷔작 <푸셔>로 코펜하겐 범죄 세계의 잔혹한 이면을 그리며 주목받았다. 이후 제작된 <푸셔> 3부작은 통해 범죄 장르 안에서 자신만의 연출 방향을 확장해왔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된 <드라이브>는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며 레픈 특유의 시각적 스타일을 확립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레픈의 영화는 서사를 절제하고 인물을 상징적 존재로 제시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강렬한 색채와 음악, 강조된 시각적 이미지는 인물의 고독과 내면의 공허를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 <푸셔> 스틸



▲ <드라이브> 스틸

■ 4K 복원판 및 국내 미공개 감독판 최초 상영

이번 기획전은 범죄영화의 계보를 가로지르며, 누아르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재창조되는지를 조망하는 자리다. 세 감독은 기질과 스타일 면에서 현저히 다르지만, 범죄 누아르를 통해 '외부자'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탐구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이들은 누아르 장르를 구성하는 상징적 이미지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고 변주하며, 반복적으로 다뤄온 설정과 주제를 통해 각자의 고유한 연출 스타일을 형성해왔다. 고독과 운명, 죽음에 대한 사유가 스크린 위에서 교차하는 이 기획전은 범죄 누아르가 어떻게 시대를 넘어 하나의 스타일이자 세계관으로 진화해왔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서는 장 피에르 멜빌의 <밀고자>, <사무라이>, <암흑가의 세 사람>과 니콜라스 윈딩 레픈의 <푸셔> 3부작 4K 복원판을 극장에서 국내 최초로 상영한다. 또한, 마이클 만의 국내 미개봉작 <블랙코드> 감독판도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부대행사로는 최영진 시네마테크KOFA 프로그래머, 장병원 DMZ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이동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여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2월 26일부터 영상자료원 홈페이지(www.koreafil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참고] 프로그램 개요

멜빌 x 만 x 레폰

- 일 정: 2026년 3월 12일(목) ~ 4월 7일(화)
- 장 소: 시네마테크KOFA
- 상영작: <도둑>(마이클 만, 1981) 등 총 18편

섹션	연번	작품명	감독	제작년도	비고
장 피에르 멜빌	1	밀고자	장 피에르 멜빌	1962	
	2	두 번째 숨결	장 피에르 멜빌	1966	
	3	사무라이	장 피에르 멜빌	1967	
	4	그림자 군단	장 피에르 멜빌	1969	
	5	암흑가의 세 사람	장 피에르 멜빌	1970	
	6	형사	장 피에르 멜빌	1972	
마이클 만	7	도둑	마이클 만	1981	
	8	맨헌터	마이클 만	1986	
	9	히트	마이클 만	1995	
	10	콜래트럴	마이클 만	2004	
	11	마이애미 바이스	마이클 만	2006	
	12	퍼블릭 에너미	마이클 만	2009	
	13	블랙코드 (감독판)	마이클 만	2015	
니콜라스 윈딩 레폰	14	푸셔	니콜라스 윈딩 레폰	1996	
	15	푸셔2	니콜라스 윈딩 레폰	2004	
	16	푸셔3	니콜라스 윈딩 레폰	2005	
	17	드라이브	니콜라스 윈딩 레폰	2011	
	18	온리 갓 포기브스	니콜라스 윈딩 레폰	2013	